

지역 도시재생 뉴딜 국비 1500억 확보

국토부. 광주5·전남 8곳 선정 ... 쇠락한 도심에 '활력'

국토교통부 2018년 도시재생뉴딜 공모에 광주가 5곳, 전남이 8곳이 각각 선정됐다. 민선 7기 첫 해 광주시와 전남도가 도시을 되살리기 위해 필요한 국비를 확보함에 따라 지역경제 기반 마련, 중심 시가지 및 주거지 재생 등을 통해 도시 활력 제고, 일자리 창출 등이 가능한 전망이다. 원주민의 정착과 도시 매력 발산을 통한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구체적인 세부사업의 계획 및 집행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관련기사 3면>

2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 31일 국토부 도시재생뉴딜 공모에서 ▲경제기반형 뉴딜사업으로 시 본청의 '광주 역전(逆轉)', 창의문화산업 스타트업 밸리' ▲중심 시가지형에 복구의 '대학자산을 활용한 창업기반 조성 및 지역상권 활성화' ▲주거지 지원형에 동구의 '문화가 빛이 되는 동명마을 만들기', 서구의 '벚꽃 향기 가득한 농성 공동체 마을', 남구의 '더 천년 사직, 리뉴얼 선비골' 등 모두 5곳이 최종 선정됐다. 이들 5개 사업에 오는 2023년까지 투입되는 국비는 모두 700억원이다.

화순읍 등 3곳 ▲중심 시가지 나누시 금남동, 광양시 광영동 등 2곳이다. 이들 지역에는 5년간 총 800억 원에 달하는 국비가 지원된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모두 1500억원에 이르는 국비와 LH 등 공공기업의 자금 투입, 민간자본의 유치 등을 통해 쇠락한 지역 중심시가지, 주거지 등을 재생하고, 지역경제를 견인할 수 있는 거점을 구축할 방침이다.

이봉수 광주도시재생연구소 이사는 "광주시와 전남도가 이번 국토부 선정에서 상당한 성과를 낸 것으로 평가한다"며 "인구 유출, 지역경제 쇠락 등을 겪고 있는 도시를 되살리면서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도시재생 뉴딜이라는 기본 취지에 맞는 세부 사업, 프로그램을 마련해 집행해 모범사례를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적으로는 모두 99곳이 선정됐으며, 총사업비는 국비 9738억원을 포함해 지방비, 공공기관 투자, 민간투자, 기금 활용 등 7조 9111억 원에 달한다. 향후 선도지역 지정, 실현 가능성 및 타당성 평가, 국비 지원 사항 확정 등 활성화 계획 수립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 2019년 상반기 내 사업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정기국회 오늘 개원 ... 100일 대장정 돌입

문재인정부 출범 후 두 번째 정기국회가 3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100일간의 대장정에 들어간다. <관련기사 3면>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3개 교섭단체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 31일 국회에서 비공개 회동 끝에 정기국회 일정에 합의했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한국당 김성태 대표,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가 연설자로 나서는 교섭단체 대표연설은 오는 4일부터 6일까지 이어진다.

이후 김기영, 이석태, 이은애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10일부터 이를 간 차례로 열리며 14일 본회의에 임명동의안이 상정될 예정이다.

대정부질문은 13, 14일과 17, 18일 나흘 간 진행되며 국정감사는 10월 10일부터 29일까지 이뤄진다. 내년도 예산안 처리 목표 시점은 11월 30일로 정했다.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내달 14일과 20일, 11월 1·15·29·30일, 12월 6·7일에 열릴 계획이다.

여야는 정기국회 개회를 하루 앞둔 2일 한목소리로 민생국회를 다짐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이 반대를 위한 반대는 안 된다며 '통 큰 협치'를 당부한 반면 야당은 470조원이 넘는 '슈퍼 예산'에 대한 철저한 심사와 현 정부 정책기조에 대한 검증을 버리고 나서 협력을 예고했다.

/박지경 기자 jkpark@kwangju.co.kr



손흥민, 태극기 휘날리며 ... 지난 1일 오후(현지시간) 인도네시아 자와바랏주 보고르 치비농의 파칸사리 스타디움에서 열린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남자축구 결승전에서 일본을 상대로 2대 1로 승리한 뒤 손흥민이 태극기를 들고 그라운드를 누비며 환호하고 있다.

/연합뉴스

축구·야구, 일본 꺾고 금메달

한국 금 49·은 58·동 70개 3위



'한일전' 연속 승전보 속에 한국이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을 종합 3위로 마무리했다. <관련기사 20면>

한국이 2일 대회 마지막 종목인 트라이애슬론 혼성 릴레이에서 은메달을 더하면서 금 49개, 은 58개, 동 70개로 16일간의 대장정을 끝냈다.

폐막 전날이었던 1일은 '한일전'의 승리

사랑과 감사의 64년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2018]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www.kwangshin.ac.kr

였다.

한국 야구대표팀이 양현종(KIA)의 6이닝 무실점 호투 속에 일본에 3-0 승리를 거두며 대회 3연패에 성공했다. 야구에 이어 시작된 축구 결승전에서는 연장 혈투 끝에 손흥민(토트넘)이 2도움을 기록하며 2-1 승리의 중심에 섰다.

야구·축구의 동반 금메달이 나온 이날 국제종합대회 사상 두 번째로 결성된 남북 단일팀의 4번째 메달도 기록됐다.

여자농구 남북 단일팀은 중국과의 결승에서 만리장성을 넘지 못하고 65-71로 졌지만 귀한 은메달을 목에 걸었다.

카누 여자 용선 500m에서 금메달, 여자 용선 200m과 남자 용선 1,000m 동메달에 이은 이번 대회 남북 단일팀의 네 번째 메달이자, 구기 종목에서 나온 첫 메달이었다.

이번 대회에서 나주 출신의 나아름(상주시청)은 대회 4관왕에 등극하며 스포트

라이트를 받았다. 나아름은 여자 도로독주에서 대회 2연패에 성공하는 등 4개의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이번 대회에서 정식종목으로 첫선을 보인 주짓수(성기라·여자 62kg)와 패러글라이딩(크로스컨트리 여자단체전)에서도 금빛 소식이 전해졌다.

하지만 한국은 금메달 65개로 6회 연속 종합 2위를 달성하겠다는 목표에는 이르지 못했다. 1982 뉴델리 아시안게임 이후 처음으로 50개의 금메달을 채우지 못한 한국은 기초 종목에 집중한 일본(금메달 75개, 은메달 56개, 동메달 74개)의 선전에 밀렸다. 한국이 2위 수성에 실패한 것은 1994년 히로시마 대회 이후 24년 만이다.

중국의 독주는 여전했다. 9초 92의 아시안게임 신기록으로 남자 100m 정상에 오른 쑤빙텐 등이 이끈 중국은 이번 대회에서 금 132개, 은 92개, 동 65개를 싸수리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2일 오후 바른미래당 대표로 선출된 손학규 후보가 당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바른미래당 대표 손학규

바른미래당 신임 대표로 손학규 후보가 선출됐다. <관련기사 4면>

또 최고위원으로 하태경·이준석·권은희 후보가 뽑혔다.

바른미래당은 2일 국회에서 전당대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지도부 선출 투·개표 결과를 발표했다. 손 신임 대표는 27.02%의 득표율로 1위를 차지했고, 하태경 후보 22.86%, 이준석 후보 19.34%의 득표율을 기록했다. 권은희 후보는 6.85%로 4위 안에 들지 못했지만, 여성 몫으로 최고위원이 됐다. 또 김수민 후보가 전국청년위원장에 선출돼 당연직 최고위원이 됐다.

손 대표는 26년간의 정치 여정에서 여와야, 보수와 진보를 넘나들며 경기지사, 장관, 국회의원을 두루 경험한 '경륜'의 정치인이다. 한나라당·대통합민주신당·통합민주당·민주당·국민의당·바른미래당까지 여러 정당에 몸담았던 그는 더불어민주당 계열 정당에서 두 차례 대표를 역임했다. 손 대표가 당권을 거머쥔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박지경 기자 jkpark@kwangju.co.kr

변호사 개업인사

저는 청주·제주검정장, 광주교정감정사를 역임하고 검찰을 떠나 변호사로 새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성실과 진심으로 최선을 다하고자 하오니 변함없는 성원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 주요 학력 ◀
- 수창초(53회), 송원중(13회), 송일고(32회) 졸업
- 고려대학교 졸업, 대학원 수료
- 조지워싱턴 로스쿨 방문교수과정(증권관계법)

▶ 주요 경력 ◀
- 사법연수원 21기 수료
- 청주·제주검정장, 광주교정감정장, 광주교정감정장, 대검찰청 과학수사지원관, 중앙수사부 2과장
- 서울고검 검찰부장, 청주지검 검찰검사
-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장, 특수1, 2, 3부 검사 및 부부장검사
- 김천지청장, 해남지청장
- 광주지검, 순천지청 근무
- 금융위원회의 법률자문관, 공정거래위원회 법률자문관

변호사 이석환 올림

• 입회 개시 : 2018. 8. 20. • 대표전화 : (02) 581-1900
• 업무 장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24 서한빌딩 20 (초은동)
• 개업 소관 : 2018. 9. 14. (금) 16:00부터

Introducing GLC 350 e 4MATIC

#switchtoEQ

GLC 350 e 4MATIC 출시!
탁월한 퍼포먼스와 놀라운 연비를
동시에 실현한 메르세데스-벤츠의 e-Mobility.

메르세데스-벤츠 공식딜러 신성자동차에서 경험하세요!

Mercedes-Benz

신성자동차

광주 전시장 (062)226-0001 & 화정 서비스센터 (062)376-2557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1041(화정동)
소문 저비스센터 (062)942-7200 광주광역시 광안구 어룡대로 603번길 20 (소문동)
수원 서비스센터 (062)961-0090 광주광역시 광안구 임왕대로 520(수원동)

정부 공인 표준 연비 및 등급
GLC 350 e 4MATIC (배기량: 1,991cc, 공차중량: 2,120kg, 작동7단), 복합회합모드 연비 (CS연비): 9.7km/ℓ (도시연비: 9.1km/ℓ, 고속도로연비: 10.6km/ℓ), 복합전기모드 연비 (CD연비): 2.3km/kWh (도시연비: 2.0km/kWh, 고속도로연비: 2.6km/kWh), 복합CO₂ 배출량: 92g/km, 1회 충전 주행거리: 15km
※ 본 연비는 표준모드에 의한 연비로서 도로 상태, 운전 방법, 차량 적재 및 정비 상태 등에 따라 실주행 연비와 차이가 있습니다.
※ 상기 자료를 이미지는 국내 시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